

프랑스, 농민단체 대규모 젖소목장 건립 반대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서 건립중인 1천두 규모의 젖소 목장에 대해 유기농을 권장하고 대량 농업생산에 반대하는 농민단체가 격렬히 반대시위를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단체에 속한 회원 백여명이 참석한 시위에서 이들은 목장 건립현장 말뚝에 자신들의 손을 묶고 공사를 저지하였는데 이같은 대규모 목장이 산업화된 농업의 상징이며 이런 농업이 농촌의 평범한 농민들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349번째 부자인 건축주는 프랑스내 최대 규모인 5.7ha인 이 목장을 올해 상반기중 완공할 예정이며 234m에 달하는 우사에 1천여두의 젖소를 사육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 관계 당국은 이미 지난 3월 이번 목장 건립에 대해 건축 승인을 내준 상태라며 1천1백만유로가 투자되는 이번 목장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북해도 낙농가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 착수

일본의 낙농지대인 북해도의 낙농가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낙농가 실태조사가 2월중에 대대적으로 실시된다고 일본 농협 북해도 중앙회가 발표하였다. 작년도에 집유 단체인 호쿠렌에 우수 출하를 중단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는 농가의 연령은 물론 최종 사육두수, 부채등 기초 정보는 물론 출하 중단의 원인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동력 부족, 고령화등 구체적인 선택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하고 출하정지후에 이농했거나 농업법인에 근무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해도에 우유를 집유하는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6천2백호로 10년간 24%가 줄어들었으며 매년 2백호 정도가 낙농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우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98.8%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북해도 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방식등을 건의할 예정이며, 집권 여당내에서도 지난해 말 중장기적인 새로운 낙농유업대책 요강을 수립하여 지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낙농업계 종사 여성 인력 증가세

뉴질랜드 내에서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감소세이나 낙농업계 종사하는 인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남섬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지난 '06년 3천48명에서 지난해 2천98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낙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낙농업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목장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시각도 지난 30년전에 크게 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 낙농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여성 낙농인들을 위한 교육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낙농업에 관여하면서 전에는 남성 전유물이었던 목장 경영이나 재무 관리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조사에 따르면 농업관련 대학 재학생중 여학생의 비율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농업계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우유로 건배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일본 북해도의 한 지방 정부가 모든 행사에 우유로 건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낙농지대인 이 지역은 4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데 우유외에 우유 두부등 우유를 활용한 각종 음식 소비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같은 조례 추진은 그동안 관련단체 및 유업체가 협력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지역 특산 우유에 대한 인지도는 올랐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고심하던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례 추진을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우유 건배 조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교토시는 지난해 1월 지역산 청주로 건배를 하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산 와인으로 건배를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